

LOCAL

2025년 5월 1일 목요일

화순적벽 버스투어

어린이날 연휴 특별 운영

화순문화관광재단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평소 주 5회(수·목·금·토·일)만 운영하던 인기 관광 프로그램 '화순적벽 버스투어'를 5월 5~6일 이틀간 특별 추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별 운영은 어린이날 연휴 기간을 맞아 가족 단위 관광객들과 평소 주말 여행이 어려운 여행객들을 배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가 운영은 기존 적벽서투처럼 화순은천 주차장, 이서커뮤니티센터, 화순적벽 입구 매표소에서 현장 선착순 매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 예약은 불가능하다.

화순적벽 버스투어는 지난 23일 시작 이후 첫 주부터 폭발적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평소 접근이 어려운 환경에서 조선 제1의 비경인 '화순적벽'을 버스투어를 통해 편리하게 감상할 수 있다는 점이 관광객에게 큰 만족을 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화순적벽 버스투어 누리집 (<https://tour.hwason.go.kr/cmd>)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중천 화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봄 여행기간과 어린이날 황금연휴를 맞아 더 많은 관광객에게 특별한 화순의 자연을 소개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관광객들과 소통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영광, 줄음 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점검...13일 개통식

영광군은 최근 영광 줄음 쉼터형 하이패스IC 진입도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3일 예정된 개통을 앞두고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도로 시설물, 교통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개통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에 힘써 군민과 이용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13일 오후 2시 개통식 기념행사 후 오후 3시부터 영광 줄음 쉼터형 하이패스IC 개통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영광 줄음 쉼터형 하이패스IC 개통은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 향상과 주요 관광지인 불갑테마공원, 불갑사지구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gwangnam.co.kr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18.3대 1 '경쟁 치열하네'

시, 25가구 공급...신혼부부 유형 신설 등 459명 몰려

정기명 시장 "경제적 자립 지원 등 앞으로 공급 확대"

여수시가 '임대보증금 0원'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신청자를 접수한 결과 평균 18.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접수를 마감한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모집에 지난

해(299명)를 크게 웃도는 459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8.3대 1이다.

유형별로는 우선공급 3대 1, 신혼부부 6.3대 1, 여수시민(청년) 24.8대 1, 전입예정(청년)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가 올해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은 총 25호로 우선공급 1명, 신혼부부 3명, 여수시민(청년) 16명, 전입예정(청년) 5명이다.

특히 올해는 신혼부부 유형을 신설하고 거주 중 출산한 가구는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내 결혼 예정인 가구도 예상장 계약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유자격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22일 여수문화홀에서 현장 공개 추첨을 통

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6월 중 입주할 예정이다.

정기명 시장은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적극행정의 산물"이라며 "오는 2028년까지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려 200호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은 여수시가 전세 계약한 공실 임대주택을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일정 기간 임대보

증을 무상으로 공급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책으로, 문수동에 소재한 부영9차아파트 중 66.1㎡ 공공임대아파트다.

시는 올해 심크대와 신발장을 교체하고 배란다를 보수하는 등 실내 환경을 개선했으며, ㈜부영주택도 도배와 장판을 지원하며 환경 개선에 적극 협력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17호를 공급했으며, 당시 분야별 최대 경쟁률이 26.9대 1에 달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담양 '대숲맑은 조기햇살' 올해 첫 모내기. 담양군은 30일 봉산면 산지리 김덕수씨 농가의 '대숲맑은 조기햇살' 모내기 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조기햇살 이앙에 들어갔다. 이번 모내기는 조기햇살 단지 조성 57농가 44ha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담양군은 금성농협 공동육묘장을 활용해 조기 육묘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마쳤다. 사진제공=담양군

곡성군 혁신 어벤져스 2기, 군정 혁신 시동

대전시청 방문...유급병가 제도 등 벤치마킹

곡성군은 군정 혁신을 위한 공직자 자

율 혁신조직인 '혁신 어벤져스 2기'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총 5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캐치 캐치! 곡성핑!' (이하 곡성핑) 팀이 가장 먼저 현장 중심의 활동에 나섰다.

곡성핑 팀은 최근 대전시청 경제국을 방문해 '대전형 유급병가 제도'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며, 타 지자체의 우수정책 사례를 직접 살폈다.

대전형 유급병가 제도는 질병이나 사고 간 유급병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복지 정책 중 하나다.

곡성핑 팀은 제도의 도입 배경과 운영 방식, 신청 절차, 재정 구조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실제 운영 시 유의사항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대전시 실무 담당자는 "유급병가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도입 초기에는 예산과 운영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재는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높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곡성핑 팀은 이번 현장 학습을 통해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곡성 지역 여건에 맞는 유급병가 또는 유사 제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혁신 어벤져스 활동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발굴의 장이다"며 "앞으로도 혁신 어벤져스 활동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함평나비대축제, 개장 첫 주 6만1000여명 관람

나비판타지아 퍼레이드쇼 등 풍성...“축제 열기 고조”

제27회 함평 나비대축제가 첫 주에만 6만1000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며 대한민국 대표 볼거리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30일 함평군에 따르면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장 첫 주말부터 6만1000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올해 축제는 '나비, 황금박쥐를 만나자'를 주제로, 함평을 대표하는 두 생태 아이콘을 중심으로 더욱 풍성한 생태 체험과 창의적인 콘텐츠를 선보이며 문화체육관광부 명예문화관광축제로서의 품격을 한층 높였다.

함평엑스포공원 '나비의 문' 광장에는

초록빛 보리밭과 클로버, 조형물이 어우러진 '하늘보리정원'이 조성돼 있으며, '황소의 문'에는 뽕비(뽕내는 나비)와 황박이(황금박쥐)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다양한 전시관과 체험·공연 프로그램이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중앙광장에서는 '나비 먹이주기' '나비 날리기' 체험을 통해 살아 있는 나비에게 직접 먹이를 주고, 나비를 직접 하늘로 날려 보내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또한 나비·곤충생태관에서 '나비가 들려주는 봄날의 동화'를 소주제로 17종 20만 마리의 나비를 만나보며 '가족과 함께 실 나비 날리기' 체험을 할 수 있어 관광

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함평에서만 볼 수 있는 '나비판타지아 퍼레이드쇼'는 나비의 문 광장에서 시작한 퍼레이드카가 나비여신을 태우고 주위에 황박이와 나비 곤충탈 캐릭터, 나비요정, 미러맨 등이 흥겨운 리듬에 맞춰 춤추듯 중앙광장까지 행진해 화려한 공연을 펼치고 있어 관광객들의 흥을 돋우고 있다.

이상익 군수는 "나비 판타지아 퍼레이드쇼를 비롯해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5월 5일 어린이날 연휴를 포함한 황금연휴가 있어 축제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며 "끝까지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함평나비대축제는 5월 6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함평=최일근 기자 6263739@

강진,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 유치

11월 21~23일...전국 동호인 5000명 방문

강진군은 최근 대한체육회의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 개최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제3회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은 오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대회다. 전국 스포츠클럽 165개 팀, 5000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하며, 배드민턴, 축구, 탁구, 농구, 테니스, 야구, 수영, 배구, 체조, 댄스스포츠 등 총 10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강진군은 대회 기간 동안 종합운동장 시설과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 학생들에

게도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현재 전남 지역에는 예비 지정 스포츠 클럽을 포함해 17개소가 운영 중이다. 강진군은 이전 개최지인 경남 진주시와 경북 문경시 견학을 통해 대회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선수단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구상이다.

강진원 군수는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 유치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강진을 찾아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스포츠를 매개로 한 다양한 대회를 유치해 더 활기찬 강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찬-이진목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